

보도일시	2023.10.06.(금) 배포즉시	담당 당	김용준 더불어민주당 청년국 주임 (010-5067-806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46호 청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 시·도당대학생위원장 여야 영수회담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전국대학생위원회·16개 시도당대학생위원장(세종 공석) 합동 기자회견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민생 영수회담 거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6개 시·도당대학생위원장은 6일 금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 듣지도 않는 행동과 어려운 민생 속 민생만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있다” 고 발언했다.

양위원장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서도 범죄자나 불명예 공직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게는 아무런 비판이 없고,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날 기자회견은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김주혁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 김서연 전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락,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출산율 감소, 인구감소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인 김주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민생 영수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진하지 못하고, 제1야당 대표를 무작정 범죄자로 규정짓고 국민의 민생을 방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첨부1] 기자회견 전문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전국대학생위원회 &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여야 영수회담 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영수회담’에 속히 응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처가와 측근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속 국민의 탄식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민생만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정을 쇄신하고 오직 민생만을 챙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신속한 영수회담 추진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범죄자 프레임’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과 비상식이 된지 오래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불과 5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은 딱딱딱한 범죄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나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불명예 공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범죄자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들을 옆에 두고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검찰의 행보는 정치적 행위를 통한 일방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불과합니다.

국기문란, 안보기밀 유출, 성비위 범죄자들과는 거리낌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조차 없는 제1야당 대표와는 무엇 때문에 만남을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런 알박한 국정 운영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던 제1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위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년만에 일본에 역전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기업 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GDP의 약 2.3배까지 불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이지만 아직도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에 부적격한 이균용 후보자를 고수해 사법부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위기들은 보이지 않으신가 봅니다.

집권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대표회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국난과 국가 안보 협력을 위해 당시 제1야당 총재인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총 7차례나 만나 민생 문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장 존경한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주혁 울산시당 대학생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민생 영수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를 무작정 범죄자로 규정짓고, 국민의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17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윤석열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죽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한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시키십시오. 정치는 국민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 민생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 더 나은 내일을 보여드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민생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디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기자회견 사진

